참된 교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목회론

(존 맥아더의 목회론을 중심으로)

최정균 목사
(갈보리 교회)

존 맥아더는 목회를 최고의 특권인 동시에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책임이라고 묘사한다.[1] 최고의 특권인 동시에 심각한 책임인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성경적인 목회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목회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신학교에서의 일련의 학문적 과정을 마치고 교단이 요구하는 자격만을 얻고는 목회에 임하게 된다. 성경이 정의내리고 요구하는 목회,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연구나 성찰도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시간의 허비, 실패와 좌절, 열매 없는 사역, 하나님의 교회에 끼치는 해악, 심지어는 분별력 없이 배교적인 길을 가기도 한다.

성경적 목회로부터의 이탈의 원인은 성경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며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탐심이라고 볼 수 있다. 목회자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고전3:9).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목회자에게는 먼저 성경적 교회론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성경적 목회론을 정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성경적 관점

목회의 재발견(리처드 메이휴)

클수록 좋은 것(Bigger is Better)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은 교회성장주의라는 매혹적 이름으로 다가와 목회자들의 탐심을 자극하였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바꿔주어야만 교회가 성장한다.’ 는 설득은 악마의 달콤한 유혹이었으며 성경을 성장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 도구로 전락시키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대재앙을 겪게 되었다. 이 강력한 쓰나미는 성경적 복음과 교리를 닥치는 대로 쓸어가 버렸으며,[2] 빠른 속도로 세상정신이 교회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본질적인 교회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가져왔다. 프란시스 쉐퍼는 시대의 세상정신에 맞서지 않고 순응해 버린 채 성경을 등진 복음주의의 현실을 ‘복음주의 대재난’ 이라고 묘사하였다.[3] 여기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회복되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적 목회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 교회와 교리를 불신자들의 기호에 더 맞게 만들려는 소비자 지향적인 목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하고 파괴하며,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기만적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 기독교에 유행하는 소비자 중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목회는 교회와 목사의 역할에 대해 대혼란과 혼선을 가져왔다.[4] 목사의 바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으로 돌

---

1)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목회론』, 박성창 역(서울:부흥과 개혁사, 2011) 10.
2) 한 세기 전의 자유주의자들과 오늘날의 실용주의적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유사성은 비정상적으로 교리를 혐오하는 점이다(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29).
3)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26-27.

아가야 한다.

목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존 맥아더)

(벧전 5:1-3, 개정)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진리의 수호자와 양들의 보호자로서의 목사

진리의 전파자로서 양들을 먹이는 임무에 대해서는 잘 인지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진리의 수호자로서, 양들의 보호자로서의 책무에 대해 아예 무지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태만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사실상 이것은 목회자로서 직무유기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왜곡됨이 없이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자만하거나 사람들의 비판에 의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목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유명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목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대중의 찬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추구한다.[5]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 의한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6]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고전4:4)으로서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이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며,[7] 본질적이며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8]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이나 추종에 의해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다. 또한 반대로 사람들의 비난이나 멸시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교회나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고, 사람들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왜곡됨이 없는 정확한 말씀 선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 말씀 선포에 있어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양들에게 말씀을 부정확하게 알려 주어 그들을 잘못 이끌게 되는 것이다.[9]
> 목사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이를 온전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목사를 재는 잣대는 그가 얼마나 영리하고 재미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리를 잘 수호하는가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혼잡하게 하다(Peddling)”라는 단어는 카펠레우오에

---

4) 인간의 죄성과 악인의 계획이 목회 과업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목회의 기본 목적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무지는 그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107).
5)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44.
6)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고전4:3)
7)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전4:4)
8)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4:5)
9)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49.

서 왔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성실하게 파는 영적 세일즈맨이나 사기꾼의 행위를 묘사한다.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시대만큼이나 오늘날에도 흔하다. 거짓 선지자들, 영적 사기꾼, 각종 사이비 종교인들, 엉터리 협잡꾼들이 넘쳐 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행13:10)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10]

영적 리더십을 묘사하는 수많은 직함과 은유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목자다. 목자로서 목사는 양들이 헤매지 않도록 **감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양들을 약탈하는 흉악한 이리에게서 **보호**한다.[11]

진리를 삶으로 사는 목회자

설교와 설교자 자신의 괴리는 복음의 역사를 훼방한다. 설교는 복음이면서도 설교자가 율법주의적이거나 세속적이라면 설교는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단 위의 가르침(설교)과 강단 아래에서의 말이나 행위가 다르다면 강단 위의 설교는 진정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목사의 모든 행동은 일종의 설교이므로 만일 우리가 탐욕스럽고 부주의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신도들에게 행동으로 죄를 전하는 것이다."[12] 목회자는 강단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된다. 강단에서는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목회자라도 강단 아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그의 사역은 꽃을 피우지 못할 것이며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양들 속에 섞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이끄는 것이 요구된다. 즉, 위로부터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안으로부터의 리더십이다. 양들은 앞에 선 그를 보고 그의 행동을 따라한다. 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모범적인 삶의 능력이다.[13]

역사속의 목회(제임스 스티칭거)

교회사 속의 목회의 수많은 오류들을 평가하면, 성경적인 교회론에 따른 목회론의 부재와 무지, 그리고 왜곡으로부터 연유한다. 반대로 모든 시대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성경적이며 참된 교회론과 목회론을 정립함으로써 생명력 있고 성경적인 교회와 사역으로 돌아가려는 갈망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14]

기독교 초기부터 그러한 흐름은 있었으나 시대가 흘러 중세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교회는 완연하게 영적 공동체에서 제도적 공동체로,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변질되어갔으며, 성직자를 중보자적 성격을 지닌 계급으로 격상시키고, 로마의 감독을 사도적 계승자로 인정하면서 교황제도가 생겨났으며, 교회는 자연스럽게 유럽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정치세력화 되기 시작했다.

---

10)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50.
11)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56.
12)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지상우역(서울: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88) 98.
13)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58.
14) 더 넓은 교회사의 틀 안에서 이들처럼 헌신된 또 다른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참되고 순수한 원시 교회를 추구했다. 그들은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서의 신학과 실천을 따르는 교회와 사역을 추구했다. 그런 개인들과 교회들은 여러 형태로 등장했고 다양한 환경에서 생겨났지만 모두 생명력 있고 성경적인 교회와 사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갈망을 보인다(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67).

> 서구 중세 교회의 일반적인 구조는 성직자들의 권위와 독신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많은 지도자가 당시 기독교의 세속화를 피하기 위해 수도원의 금욕적인 삶으로 물러섰다. 590년에 권력을 차지한 첫 번째 교황 그레고리 대제(540-604년)와 함께 권위의 유형은 로마에 집중되었다. 그레고리의 교황직이 교회를 더 깊은 정치 관여와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만들었다.[15]

교회의 세상권력과의 조우 내지는 세상권력과의 혼돈과 융합은 교회의 성경으로부터의 이탈을 가져왔다. 성경이 말하는 내세적이며 영적인 하나님나라가 아니라 현세적이며 정치적인 하나님나라의 개념으로 왜곡되어, 메시야의 왕국이 아닌 교황의 왕국을 세워가면서 제도적 교회는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권 교회의 타락에 대한 반동으로 각 시대에서 성경적이며 영적인 교회를 꿈꾸는 소수의 무리들이 발생하게 하였다.

> 아마도 성경적 목회를 주창했던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존 위클리프(1324-1384년), 존 후스(1373-1415년), 윌리엄 틴데일(1494-1536년)과 같은 전 종교 개혁기의 개혁자들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이들은 참된 성경적 목회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시대에 이를 촉구했다.[16]
> 요약하면, 중세 시대는 강력하지만 타락한 제도화된 교회가 지배했지만 진리의 추구로 인해 그러한 교회에 도전하려는 많은 사람이 일어난 시기였다.[17]

작은 분파적인 움직임에 지나지 않던 성경적 교회로의 개혁들은 종교개혁기(1500-1648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성경중심주의적 원리에 따른 개혁은 교리와 예배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은 여전히 세상권력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이른 바 국가 교회를 꿈꾸는 '시의회 중심의 종교개혁'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참된 재세례파들의 자유 교회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 종교개혁이 성경적인 목회에 기여한 점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시의회 중심의 개혁가들(루터, 부서, 칼빈, 녹스)과 자유 교회(참된 재세례파)를 다 살펴봐야 한다. 전자는 개혁의 기치 아래 일했던 반면 후자는 회복의 기치 아래 일하였다. 둘 다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18]

칼빈의 교회와 시(市)에 대한 견해에서 가장 성경적인 부분은 훨씬 후에야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칼빈이 로마주의에서 물려받은 시의회 중심의 국가 교회(STATE-CHURCH)를 결코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19]

현대교회(1649-현재)로 들어서서 리처드 백스터(1615-1691년)를 비롯한 광범위한 청교도 운동은 국가와 분리되고 독립된 교회의 확산을 가져옴으로써 루터와 칼빈이 극복하지 못한 국가교회를 탈피하고 보다 본질적이며 본격적인 개혁을 가져올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기에 있었던 성경적인 목회의 몇몇 탁월한 본보기로서 마틴 로이드존스(1899-1981년)나 제이 아담스, 혹은 존

15)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80.
16)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83.
17)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85.
18)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87.
19)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92.

맥아더 등을 들 수 있다.

목회에 대한 성경적 접근(알렉스 몬토야)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전통적이거나 매우 사적이며 자기본위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도출하고는 제멋대로의 성공 기대에 도취되어 성급하게 목회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하며 위험한 일인가? 올바른 교회론이 없는 목회는 사상누각이다. '성경적 사역 철학은 성경적 교회론에 근거해야만 한다. 목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0] 모든 목회자들은 성경적인 교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적인 목회론을 확립함으로써 목회의 분명한 목적과 선명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만 배교의 위험을 막고 낭비 없는 효율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

> 성경적인 목회 철학에는 목적은 물론 방법도 포함된다. 교회의 신성한 목적에 대해 얄팍하고 경박하게 이해한다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용주의적이고 세속적이며 심지어 죄로 가득한 접근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21]
> 만일 목사가 자신이 이끄는 교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분명히 하고, 간단명료하게 하고, 실행할 수 없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22]

목회에 있어서 무작위적인 노력과 최선만으로는 안 된다. 목회자에게는 성경적인 목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뚜렷하게 정립하고 그것을 굳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설계도가 필요하다. 좌충우돌, 주먹구구식의 실험적 목회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며 인생은 너무 짧다.

> 행동 진로를 알게 되면 목사는 사역의 그런 면을 이루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자원들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자주 교회의 전반적인 목표와 거의 혹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와 프로그램과 노력들에 교회는 물론 목사의 자원들이 소비된다. 사회 문제에 사도들의 정력을 허비하려는 유혹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지만 교회지도자들의 지혜로 이를 피할 수 있었다(행6:1-7).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는 사람은 매번 아무 것도 맞추지 못한다. 분명하게 나열된 전투 계획이나 건축 청사진 혹은 상세한 작업 계획서만이 성공을 보장해준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이 1세기 교회의 성공 비결이었다.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했다.[23]

알렉스 몬토야는 교회를 예배 공동체(하나님), 전도 공동체(교회 밖의 사람), 사역 공동체(교회 안의 지체)로 설명하였다.[24] 본질적인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백성들인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하신 것이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특별한 장소와 형식과 제사법과 제사장이

---

20)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112.
21)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110.
22)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108.
23)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111.
24)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역, 전도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사역, 사역은 교회 안의 지체들에 대한 사역을 말한다.

있었지만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요 모형(히8:5)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심으로써 폐하여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심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메이지 아니하고 다만 영과 진리(요4:23)로 드리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예배는 공적 예배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사역들과 삶을 아우르는 것이다(롬12:1). 그러므로 교회의 전도나 여타의 사역조차도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실상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와 사역과 모든 삶을 통해 예배하는 공동체인 셈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인 목사의 역할에 대해 몬토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목사의 역할은 이런 광대한 목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 교회를 이끄는 것이다. 목사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목사는 개인적이고 참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행해야 하며 그런 뒤 신약 성경의 예배를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공 예배를 이끎으로써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야 한다. 목사는 또한 교회가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예배에 있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해야 한다.[25]

2. 개인적 측면

목사의 가정(리처드 메이휴)

목회자는 가정을 작은 교회요, 양떼로 여기고 목양해야 한다. 가정에 대한 목회를 통해 교회를 위한 목회의 성공여부와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목회를 성공할 수 없다면 교회를 위한 목회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딤전 3장 4절에서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에 대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제시하였다.

> 가정이 약한 것은 목회가 약한 것을 뜻한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목사는 성경적인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26]

목사의 기도 생활(개인적 측면-제임스 로스컵)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앙 그 자체라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신앙의 꽃이며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신랑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없이는 신부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교제가 없이는 위로부터 난 새로운 생명을 결코 잉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의 실패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실패했기 때문이요, 성공적인 목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27] 지나간 세대의 모든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말씀 사역을 비롯한 제반 목회의 영역에서의 괄목

---

25)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116.
26)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238.
27)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질그릇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쏟아 붓게 된다(호라티우스 보나,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안보헌 역(서울:생명의 말씀사, 1998) 110).

할 만한 성공의 뿌리를 목회자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관련짓는 것을 볼 수 있다.

> “그들이 그처럼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그들처럼 성공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설교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 물론 조지 휘트필드나 존 베리지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의 설교를 연구해서 그 양식을 흉내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로 연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사람들 자신이다. 우리의 사역이 그들 사역처럼 능력 있고 성공적인 사역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한 일보다 그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아주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도 살아계신 구세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야 비로소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를 받음과 동시에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주님과의 이런 교제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교제 없이는 아무리 정통신학을 고수하고, 학식이 많고, 웅변술이 좋고, 변증에 강하고, 열심히 있고, 진지해도 주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다. 힘 있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살아 계신 구세주와의 친밀한 교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이 길르앗 향료가 되어 상처받은 심령들을 싸매어 줄 수 있으며, 우리의 논쟁이 강력하고 예리한 화살이 되어 완강히 저항하는 사람의 양심에 박힐 수 있는 것이다. 주님과 거룩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항상 고결하고 복된 향기를 은은하게 풍기며 그 주변을 아름답게 만든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비결이다.[28]

얼라인(Alleine) 목사님은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기도와 설교에 쏟았다. 그의 기도와 설교는 애정이 넘치고 거룩한 열심과 생명과 활력으로 가득해서 회중을 압도했다. 그는 회중을 감동시켜 가장 완악한 심령도 누그러뜨리고 위로하며 때로는 녹였다.” 그의 마음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로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뜨거운 햇살을 받지 않았다면 이처럼 거룩하게 심령을 녹이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29]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목회자가 **불타며 빛나는 등불**이 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늘 목회자를 밝게 비추시고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빛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알고 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30]

> 요한복음 15장 8절은 기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참된 제자임을 입증하는 삶임을 보여준다.[31]

바울은 자신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또한 강조했다(엡6:19-20). 모든 목사에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과 명료함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한 명에게 전하든지 여러 사람에게 전하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찔러 쪼갤 수 있다(히4:12을 보라). 바울은 담대함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명료

---

28) 호라티우스 보나, 39-41.
29) 찰스 스펄전, 『스펄전의 목사론』, 이용중 역(서울:부흥과개혁사, 2005) 185.
30)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성도들의 영혼 지킴이』, 이용중 역(서울:부흥과개혁사, 2006) 117.
31)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255.

함을 위해서(골4:2-4), 복음이 신속하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살후3:1), 악한 사람들에게서의 보호를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살후3:2).[32]

> 말씀 사역을 위해서는 말씀 사역자 본인은 물론, 이 말씀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회중이 처음부터 알도록 해야 한다. 기도 시간을 정하라. 하지만 그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니 누구라도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면 기도 모임은 계속될 뿐 아니라 점점 커져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목회를 움직일 일종의 발전소를 얻게 되는 것이다.[33]

제임스 로스컵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기도의 영이 없이 이 거대한 일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전쟁터에 자기 자신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이다. 사탄의 왕국은 학문의 공격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조직적 움직임이나 외적 형태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부 성벽에서 큰 공격이 가해질지 모르나 성채는 끄떡없을 것이다. 전능한 자의 능력을 입은 복음 사역 외의 다른 어떤 세력으로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며, ‘적법한 포로가 놓여나지’ 못할 것이다(참조, 요12:12-32; 고전 1:21-24).”[34]

목사의 기도 생활(목회적 측면-도날드 맥더갈)

목사는 성경이 촉구하는 기도를 지역 교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성경과 일상의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기도의 모델을 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도의 동기부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 소그룹의 기도, 남자들의 기도가 다 필요하다. 한 개인의 삶, 가정생활, 일상의 모임, 기도 모임, 소그룹 모임, 직원모임, 주일 예배, 리더 모임에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35]

> 궁극적으로 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때가 되면 그 목사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목회에서 따라 하기가 생겨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했다(살전 1:6). 그것이 목사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훈련시키기 어려운 이유다. [36]

개인과 지도자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는 공적인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현대인들은 수요기도 예배가 구식이며 21세기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기도 모임을 교회 스케쥴의 필수적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37] 목회자나 성도들이 공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

32)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273.
33) 윌리엄 스틸, 『목사의 길』, 장호준 역(서울:복있는 사람, 2011), 45.
34) 찰스 브리지스, 『참된 목회』, 황영철 역(서울:익투스, 2011), 108.
35)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275.
36)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275.
37)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283.

들의 시각이 물질적인 세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어 긴장성을 갖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물리적이거나 재정적인 필요, 즉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재정적인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 목사의 삶에서 평범한 하루는 이러한 잘못된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이 꽉 찬 스케쥴을 대한다. 그는 육신의 힘이 허락하는 한 자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수많은 사항들을 성실히 처리한다. 후에 그는 하루 종일 몇 번의 형식적인 기도 외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만일 그가 그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할 것이다. 우리 목사들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거기서 그치는 경향이 있다.[38]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더니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싸움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거나 육체적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의 싸움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한 모든 노력이나 능력들이 아무런 효력도 행사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임을 절감하며 겸손하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이다.

> 바울의 기도는 다른 영역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우리의 진짜 싸움은 그 다른 영역에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켜 놓았다. 그런 다음 나는 나 자신의 개인 기도와 기도회에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내놓고, 교인들이 카드에 적어 제출하는 대다수의 기도 제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기도 제목으로 언급된 거의 모든 것은 물리적이거나 재정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물질세계에 있는 것에 빠져 있는 세속적인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사고는 삶의 진짜 문제들은 하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우리의 문제들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성격에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종종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진정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39]

목사의 연구(존 맥아더/로버트 토머스)

존 맥아더 목사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왜곡시키지 않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부단하고 **엄격한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특히 교회를 세우며

---

38)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280.
39)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287.

자라게 할 중심이 되는 커다란 진리를 가르치는 주일 오전 설교를 위해서는 가장 엄격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40]

또한 존 맥아더 목사는 정확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어 연구**가 필수라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원어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도 주석가들이 정확한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지한 성경 강해자가 되려면 원어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다.[41]

>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설교자가 전하는 내용이 가능한 한 가장 **신중한 연구에 기초해 본문의 참된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될 때까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초 아니면 몇 주 전에 설교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42]

3. 목회적 측면

예배(존 맥아더)

예배를 외형적인 기구들이나 의식 혹은 예전, 혹은 감정적 흥분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새 시대의 영과 진리로서의 참된 예배를 왜곡시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흔히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에서 예배의 경건을 찾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진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진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겨난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모든 예배는 그 외형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43]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숭배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요일2:15-16)이며, 탐심이 곧 우상숭배(골3:5)임을 가르쳐 준다.

> 사실 거짓 예배를 추구하는 것은 죄악 된 인간 본성의 자연스런 경향이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 무언가를 예배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선택한 다른 거짓 신들을 경배한다. 그런 신들이 항상 인격체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 인기, 권력을 예배할 수도 있다.[44]
>
>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는 많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타협과 미신에 대해 혐오한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신뢰하고 집이나 차,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쏟는 자기 자신들의 습관에 대해서는 망각한다.[45]

성경은 우상숭배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

---

40)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07.
41)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11.
42)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19.
43)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51.
44)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54.
45)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55.

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이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냈다. 출애굽기 32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호칭된 금송아지 숭배는 솔로몬의 사후,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벧엘과 단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어지며(왕상 12:28-29),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왕상15:34,16:2,16:19,22:52).

> 이스라엘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그들은 참된 예배와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둘 다 더럽혔다. 하나님을 하나의 상이나 그림으로 대변되는 형태로 격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며 따라서 용납될 수 없다.[46]

오늘날에도 열린 예배와 같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식으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성경의 명백한 명령이 아닌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가장 교묘하고 외형적으로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거짓 예배의 경우가 바로 참된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그러나 잘못된 태도로 예배할 때다.[47] (대선지서나) 소신지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은 적합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잘못에서 생겨났다.[48]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활동 가운데 하나이거나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 해당되는 삶의 한 요소가 아니다. 예배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특정한 사건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분명 그것은 참된 예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가 외적인 것, 즉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미리 결정된 형식을 따라 행해지는 예식, 공연 혹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전혀 아니다. 예배를 하나의 장소, 시간 혹은 인생의 부분으로 고립시키거나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를 곡해한 것이다. 제대로 된 예배 행위는 예배하는 삶에서 넘쳐 흘러나온 것이어야 한다.[49]

설교(존 맥아더)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자의 책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이 중대한 일에 있

---

46)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57.
47)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59.
48)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61.
49)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62.

어서 영원한 불행을 피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소중한 영혼을 목회자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는 영혼이 목회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얻고 그리스도가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확보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50]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주로 설교와 가르침이었다. 사도행전을 대강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설교는 또한 초대 교회의 중심이기도 했다. 역사를 통해 참된 교회는 **성경적 설교**를 매우 강력하게 강조해 왔다. 설교는 16세기 종교개혁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었으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부흥이나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 교회는 배교와 현대성의 거센 급류에 찰스 스펄전이나 조셉 파커, 알렉산더 맥클라렌, 알렉산더 와이트 같은 이들의 강력한 설교로 대항했다.[51]

성경의 충분성을 토대로 한 설교가 아니라 소비자지향적인 설교는 대중 일반의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 왜곡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복음은 생래적으로 대중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고전 1:23).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다(고전1:24).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근원은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고전2:5). 그러므로 대중의 취향에 맞는 성질의 것으로 희석시켜 더 많은 이들을 설득해 보려는 모든 어리석은 시도들은 중단되어야만 한다.

> 성경적 토대의 상실이 바로 현대 교회에서 설교가 쇠퇴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설교의 쇠퇴는 교회의 연약함과 세속화의 강력한 원인이다. 만일 교회가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설교가 먼저 올바른 성경적 토대로 돌아와야 한다.[52]

표피적인 읽기와 피상적인 연구에 그치게 되면 성경의 정확한 의미 파악과 전달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결국 말씀의 왜곡에 이르게 된다. 말씀 연구와 강해 설교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교는 목사에게 가장 본질적이며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과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시간과 모든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설교자들의 헌신을 요구한다. "날마다 끈덕진 성경 연구의 훈련 이외에도 우리들은 강단에서 해석(설교)하기 위하여 선택된 구절에 우리들을 적응시키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안이한 방법을 삼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개가 뼈다귀를 가지고 씨름하듯 성경 본문을 애써 연구하며 묵상하며 씨름하며 마침내 그 본문이 의미를 가져올 때까지 시간(시간 단위)을 보내야 한다. 어떤 때는 이 과정이 수고와 눈물을 수반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하여 서가의 모든 재료들-성경 사전, 성경 색인, 현대적 성경, 주석 등등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본문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책 중의 책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책의 가장 적합한 해석자가 되시기 때문이다."[53] 존 맥아더는 설교자의 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 강해설교는 가장 힘든 분야다. 그것이 아마도 강해 설교가 희귀한 이유일 것이다. 사도들의 본을 받아 "우리가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행6:2,4)고 말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하려 할 것이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

50) 조나단 에드워즈, 28-29.
51)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78.
52)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81.
53) 존 스타트, 『설교자 像』, 문창수역(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1972) 34.

> 는 불가능하다. 일상에서 읽은 성경 말씀의 몇 구절을 대강 훑어본다거나 설교할 때만 본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래선 안 된다. 우리는 매일 성경에 우리 자신을 깊이 적셔야 한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듯이 몇몇 구절을 언어학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것뿐 아니라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너른 궁창을 세밀히 살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장엄한 주제를 인류의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54]

인간의 철학이 가미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로 채색된 설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성이나 감성을 자극할지는 모르나 그들의 영혼에는 질 좋은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러한 말씀 아닌 말씀을 오랫동안 듣게 되면 말씀에 대한 기갈에 시달리고 영혼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영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신앙은 퇴보하게 된다. 목사들에게는 부단한 성경연구와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그 말씀'을 양들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교회는 요즘 말로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쇠약해졌다. 온갖 종류의 인공 방부제와 부자연스런 대체제가 교회에 제공됐다. 그 결과 암을 유발하거나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음식이나 제품으로 인해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진보를 이룬 바로 이 세대가 신학적, 성경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참된 전파의 부재(암 8;11)로 생긴 세계적인 영적 기근이 대부분의 교회에 계속해서 퍼지고 있으며 거의 감퇴하지 않고 있다.[55]

전도(알렉스 몬토야)

작금의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학을 오해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며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미련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정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전 1:21).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 영혼을 얻는 데 가장 우선적인 필수 요소는 죄인들에게 달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영혼 구령에 있어 가장 간단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들은 죄인들에게 달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외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바치고 정직하게 빚을 갚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과 주변의 모든 친구는 지옥에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지 않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려고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말이다. 실제로 시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혼 구령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영혼을 얻으려는 노력에 복을 주신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구원받도록 만들지 못할 것이다.[56]

목회자로서 나는 개인 전도를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틀에 박힌 공식화된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맞게 자유자재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목회자들은 교회

54)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87.
55)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390.
56)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460-461.

밖에서의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 있는가? 진정한 개혁주의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사실상 선교사이며 전도자이다. 목회자인 내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교인들을 교회 밖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만들려면 목회자 자신이 먼저 교회 밖에서의 복음 선포에 열정을 가져야 하며 익숙해져야 한다. 현재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복음전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교회 밖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실행에 옮겨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 교회들은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어느 목사의 표현처럼 교회는 더 이상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전도를 한다는 교회들도 고작 소심하게 전도지를 돌리는 것에 만족하고 만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먼저 실행에 옮겨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숨어서 복음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 담대히 교회 밖으로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실력과 담력을 키워야 한다. 사도들과 개혁주의 선배들은 야외 설교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실상 그것은 야외 설교라기보다는 야외 전도였다.

> 개인 전도는 매일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을 전파했던 초대 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이었다(행 5:42).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 증인들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려는 개인적 노력과 열심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8:26-39,20:20). 개인 전도에 대한 강조는 개인 전도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전도에서의 위대한 성공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고 이에 참여하는 이가 많을수록 결과는 더욱 좋을 것이다.....우리는 개인적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도록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이것들이 분명 우리의 복음 전도 노력에 있어 우선순위다.[57]

한국교회에서 마귀의 대성공은 복음 전도를 소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키고 고립시켜 놓은 것이다. 그리고는 전도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무식하며 고상하지 못하며 목소리가 적당히 쉬어 있는 아줌마들이나 하는 일로 전락시켜 놓았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필수적인 사명이자 특권이며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위대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세상이 거리끼고 미련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 복음 전파와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이자 위대함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의 복음 선포는 신학박사들이 하는 고상한 행위이고 교회 밖에서의 복음 선포는 아줌마 부대들이나 하는 저급한 행위라는 왜곡된 인식은 누가 뿌려놓은 것인가? 설교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던져버리고 교회 안에서 선포하려고 준비한 설교를 교회 밖에서도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안의 고상한 설교와 교회 밖의 저급한 전도(?)의 경계선이 무너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디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 아니던가? 미사어구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 학문적인 양념을 추가할 필요도 없다. 그냥 원색적인 그대로의 복음이면 족하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전2:5).

> 초대 교회의 설교자들은 신자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불신자를 회심시키기 위한 설교를 고안

57)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462-463.

> 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딱하게도 불신자들의 필요를 공적으로 언급하는 데 있어 부족하다. 목사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추구해야 하며 그런 후 복음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속에서 그런 훈련을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58]
> 만일 목사가 전도를 하면 그는 자신의 본을 통해 성도들도 같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게 될 것이다. 스펄전은 자신의 고전 『전도 설교』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진지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굼뜬 목사는 활기차고 열정적인 교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일을 그저 쉽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영혼 구원에 대해 진지한 사람들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는 데 굼뜨고 냉담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함으로써 불씨에 불을 붙일 필요가 있다.[59]

알렉스 몬토야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 안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원인은 복음전도의 방법과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든지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려는 적절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60]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전도의 본질과 그리고 그에 걸 맞는 전도 도구와 방법 등을 계발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그들에게 적절한 전도의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한다.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그 어떤 창의적인 것을 고안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전적으로 그를 변화시키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리한 말과 음악 또는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오늘날의 교회 성장 운동의 많은 부분에 인간의 조직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참된 영적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수많은 기술이 있다. 기술이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고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독교를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다면 그것은 비 성경적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61]

감독과 경고(리처드 메이휴)

그리스도의 양떼를 영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되는 목회 의무들 중 하나다. 하나님은 양 떼를 진리와 의로움으로 이끎으로써 그들을 감독하는 영적 보호로 목사를 임명하신 것과 아울러 양들을 교리적 오류와 개인적 죄에서 보호하는 책임을 부여하셨다.[62]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자들의 교리적인 충실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 목회자는 교리 면에서 순수하고 분명하며 충실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가르침, 즉 교리로써 사람들의 영혼에 등불이 되도록 세움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면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려면 목회자가 믿고 있는 교리의 빛이 밝고 충만해야 합니다. 교리 면에서 섞인 것이나 어두운 것이 없이 순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신앙 면에서 건전해야 합니다. 그러므

58)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463.
59)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470-471.
60)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465.
61)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551.
62)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499.

로 목회자는 신앙 면에서 건전해야 합니다. 상실한 마음에서 나온 신앙을 가져선 안 됩니다. 교리 면에서 목회자는 부패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등불은 어둠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오류로 인도해선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진리만을 가르치고 그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이끌며 그리스도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63]

존 스토트는 교리적 오류에 대해 경계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는 20세기 목자들의 태만이 늘어나는 현상을 폭로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것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환영받지 못한다. 종종 목사는 가르침에 있어 부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듣는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읽어 보지 않았거나 읽었더라도 그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다. 주 예수와 사도들은 잘못을 반박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해 말씀하셨고 본을 보이시기도 했다. 이런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신학적 혼동의 주된 요인인 것은 아닐까? 확실히 신학적 논쟁은 예민한 영혼들에게는 싫은 일이며 영적 위험성이 있다. 그것을 즐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나 양심적으로 이를 피할 수는 없다. 만일 거짓 가르침이 생겨났는데 기독교 리더가 빈둥거리며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꼬리를 돌려 도망간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 떼를 전혀 돌보지 않는 삯군이라는 끔찍한 별명을 얻게 될 것이다."[64]

맺는 말

호라티우스 보나는 목회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기독교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죄인들을 회심**시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신실한 목사라면 누구나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인기나 명성, 명예나 재산, 이 모든 것이 실은 다 헛된 것이다. 만일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의 성장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다.” [65]

그렇다면 무엇으로 죄인들을 회심시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이나 훈련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목회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온갖 자극적이고 인위적이며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세상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실용적인 통계적 성과를 올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누구를 위한 통계이며 무엇을 위한 통계인가?

목회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이며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오류 없는 목회에 정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백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신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며 목사에 대한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들의 구원과 교회의 진정한 개혁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슬픈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66]

---

63) 조나단 에드워즈, 102-103.
64) 존 맥아더 · 매스터스 대학교의 교수진, 511.
65) 호라티우스 보나, 20-21.
66) 리차드 백스터, 218-219.

찰스 브릿지스는 목회자의 역할들에 대해 성경의 여러 예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만일 교회가 양 무리라고 불린다면, 교역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목자'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가족을 하나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교역자는 잠자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는 '파수꾼'이다(겔33:7). 만일 하나님의 교회를 밭이라고 한다면, 교역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정리하고 식물이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수확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꾼'이다(고전3:9). 만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교역자는 '견고한 터' 위에 산 돌,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벧전2:5;엡2:20-22) 신령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고전3:10)이다. 하늘의 대 주재와 반역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협정이 맺어지려면, 교역자는 '화목의 사역'을 위임받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반역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 하라'고 간청하는 사신이 되어야 한다(고후5:20).[67]

그러나 이 말은 목회자는 혼자서 교회를 위한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하는 만능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회심자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제 분야의 사역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오직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믿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결과는 놀라운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목회의 제 분야들이 많은 것 같지만 목회자가 전념하고 집중해야 할 분야는 결국 말씀과 기도로 좁혀진다. 하늘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외에 정도는 없다. 특별한 다른 일에 기웃거리며 세월과 에너지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 옛 사도들의 다짐이 우리들의 다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행6:4)

---

67) 찰스 브릿지스, 38-39.